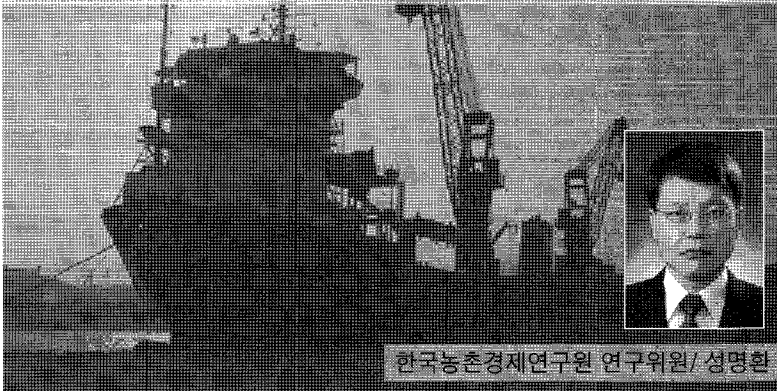


배일 벗는 개방의 폭과 이행 속도 -DDA협상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성명환

WTO의 출범 이후 세계무역환경의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대두된 새로운 통상 이슈와 기존 WTO 규범의 보완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이들 이슈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대규모 라운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출범한 DDA협상의 배경을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는 포괄적인 무역 라운드인 도하개발의제(DDA)를 출범시켰으며,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완료하도록 결정했다.

2002년 3월부터 농업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하빈슨의장의 중재아래 농산물 관세 및 보조의 감축 방식과 수준을 결정하는 모델리티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회원국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모델리티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다. DDA 농업특별위원회는 2004년 7월 9일 협상 기본골격 초안을 발표한 뒤 7월 14일 모든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는 제5차 농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안을 기초로 회원국간 최종 의견조율을 시도할 것이다.

DDA 협상 타결의 방향은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정도는 완화하면서 선진국의 보조수준은 더 큰 폭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초안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삼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개도국 지위 확보 문제와 관세 상한의 설정이라고 판단된다. 개도국 지위의 확보는 전반적인 시장개방 폭과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요건이므로 중요하다. 관세 상한이 설정되는 것은 국내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인삼은 고관세 구조아래 보호되어 왔다. 2004년 양허관세율이 수삼과 백삼의 경우 각각 222.8%이고, 홍삼류가 754.3%에 이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양허관세율 64%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아래 놓인다면, 또한 인삼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관세 상한의 설정은 홍삼류에 대한 큰 폭의 관세 감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인삼이 기존 감축방식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지금의 고관세 아래 큰 폭의 감축이 어렵다는 현실과 인삼이 우리나라 고유의 농산물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감축방식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삼은 그 자체가 가진 지역성과 문화적 특수성으로 DDA 협상에서 제시된 특별품목으로 포함여부에 따라 개방일정과 폭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쿼터물량 확

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DDA 협상타결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개방의 폭이 커지고 이행속도가 빠를수록 인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받아 개방폭이 크고 이행속도도 빠른 경우(2010년까지 관세율 40% 감축, 의무쿼터량 10%까지 증량) 2013년 인삼생산량은 현재 수준(2000~'02 평균) 14,514톤에서 11,940톤, 경작면적은 12,839ha에서 9,249ha, 경작농가수는 21,917호에서 15,729호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삼수입량은 620톤에서 4,054톤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수출량은 1,949톤에서 2,785톤으로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DDA 협상결과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받는 경우(2015년까지 관세 10% 감축, 의무쿼터량 7%까지 증량) 2013년 인삼생산량은 14,222톤, 경작면적 11,018ha, 경작농가수 18,738호, 수입량 3,050톤, 수출량 3,007톤으로 전망되었다.

어떠한 경우라도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인삼생산량은 2.0~17.7%, 경작면적은 14.2~28.0%, 경작농가수는 14.5~28.2%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삼수입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인삼산업에 적절한 대책이 없을 시 인삼생산농가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DDA 협상타결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세계 인삼시장은 크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부일대에서 생산되는 고려인삼과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화기삼으로 대별된다.

인삼시장이 개방화될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값싼 인삼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인삼생산의 위축과 홍콩, 대만 등 세계 인삼시장에서 화기삼과 저가 중국삼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따른 고려인삼의 수출 감소가 전망된다.

다만 인삼시장이 개방되어 저가의 중국산 인삼이 자유롭게 수입, 유통될 경우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내산만 구입하겠다'는 소비자가 74.7%, '가격 차이에 따라 그때 그때 선택할 것'이라는 소비자가 24.7%,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0.5%에 불과하여 개방 이후에도 국내·외시장에서 품질에 바탕을 둔

고려인삼의 우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인삼생육에 적합한 자연조건, 축적된 인삼재배 및 가공기술, 국가 전매품으로 쌓아온 명성과 신용 등으로 오랫동안 인삼중주국의 위상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안전인삼을 생산하여 차별적으로 유통한다면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중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비절감을 통한 농가수취가격 확대와 경작농가 소득보장, 유통마진의 축소를 통한 적정 소비자가격 유도과 인삼수요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신산지의 개척이나 예정지 확보 등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고려인삼의 중주국이라는 성가를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인삼농가를 지속가능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